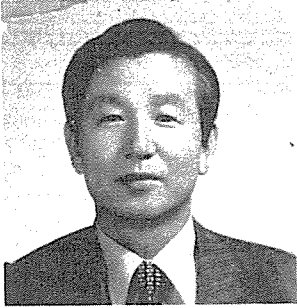


学会學術活動과 國家發展에의 寄与



趙 炳 夏
(韓國科學技術院教授)

이 글은 지난 11월 29일에 개최된 1982년도 과총평의원회의에서 趙炳夏박사가 행한 특별강연 내용이다.

1. 우리나라学会의 概要

우리나라学会는 주로 8.15해방후에 創立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100年이란 時差를 두고 後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学会는 會員들의 開拓者의 人情熱과 學者의 良識에 依해 성장하여 1970年代에는 그 活動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日本과 比較해보면 学会數는 3 : 1 이고, 會員數는 10 : 1 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專門家의 層이 日本보다 얕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学会運營에 있어서 會費依存度는 낮고 따라서 財政自立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政府나 產學協同財團으로부터 支援되는 学会誌刊行補助金도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研究發表나 学会誌刊行등의 學術活動相은 이미 우리 学会가 成長期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確認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은 그간에 成長基盤을 造成하여 이제 發展段階로 도약할 수 있는 時點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학회개요 (1980~1981년)

한 국 일 본

(1) 학회총수	253	(785)
인문·사회계	121	(284)
과학·기술계	132	(501)
(2) 회원총수	약10만명	(100만명)
인문·사회계	약2만명	(30만명)
과학·기술계	약8만명	(70만명)

(3) 학회지 간행수

종류총수	283종	간행회수 : 503회
인문·사회계	118종	205회
과학·기술계	165종	398회

(4) 학회운영비

인문·사회계	약5억
과학·기술계	약15억

(5) 보 조 금 :

문교부, 과기총, 산학협동재단 등에서 지급되는
간행물 보조금2억6 백만원
학회운영비의 약10%에 상당함.

(6) 재정자립도 :

회비가 운영비에 차지하는 백분율 ... 약30%

(7) 찬조금의존도 약60%

(8) 과학기술계 연구건수약3,500건

(9) 발표논문편수약5,000편

위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과기총, 일본문부성등의 자료집에서 얻어졌습니다.

2. 学会의 使命과 機能

〈使命〉

오늘날의 文化는 精神文化와 物質文化가 相互受容을 通하여 次元높은 調和속에서 發展해 가고 있습니다. 西歐人은 일찌기 實驗과 理論으로 自然을 探究하여 마침내 自然의 立法者가

되어 우리 보다 앞서 物質文化를 創出하였던 것입니다. 反面 우리는 儒佛思想을 主宗으로 하는 精神文化에만 至高의 價値를 부여 하므로써 物質을 賤視하고 自然의 攝理에만 따르려고만 한 나머지 自然의 遵法者가 되고 말았습니다. 物質文化는 富를 生産하며, 바로 힘의 文化입니다. 東洋에서 제일 먼저 西洋의 物質文化를 受容한 나라는 日本이며, 그들은 科學技術의 힘으로 国力을 배양하여 試驗이라도 하듯이 우리 祖國을 征服하였던 것입니다. 精神文化는 힘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啓示해줄 망정 결코 힘 自体를 產出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科學技術系 學會는 이땅에다 物質文化를 創建하는 民族의이고 歷史의인 使命을 띠고 創立되었습니다. 이들 學會는 科學의 創造와 技術의 革新을 專擔하는 主體입니다. 우리 科學技術人은 科學과 技術이 文化國家의 基本임을 確信하고, 情熱과 良識을 바탕으로 國家發展에 묵묵히 獻身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들의 天職인 동시에 우리들의 보람이고, 우리들의 使命인 동시에 우리들의 自由이기도 합니다.

世界는 理念的으로는 東西가 對立하고, 貧富格差에서는 南北이 對立하여 치열한 競爭과 冷酷한 協力속에 내일을 予測하기가 힘든 不安속에 감싸여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는 南北分斷이란 무거운 부담을 질머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克日도 중요하지마는 克北도 중요합니다. 自由民主守護와 平和의統一이 國是가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더욱 오늘날의 科學技術의 發展相을 살펴보면 先後進國間의 오늘의 格差보다 내일의 格差가 더 심해질 展望입니다. 우리가 딸아붙일 때까지 先進國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學術은 보다 專門分化가 深化擴充되고 學問間의 綜合化要求는 擴大提高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같은 與件속에서 우리 民族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科學技術力의 培養뿐일 것입니다. 世界에서 一等가는 商品을 만들어서 世界에서 二等가는 값으로 팔아 世界에서 三等가는 生活을 營爲해 나가

生活哲學이 되어지는 것이 저의 所望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生存戰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經濟成長과 工業立國 路線과 步調를 맞추어 1960年代에는 科學化基盤造成에, 1970年代에는 產業技術基盤擴充에, 1980年代에는 科學立國基盤造成에 각각 科學技術振興政策의 力點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70年代는 技能優先으로, 80年代는 技術優先으로 2000年代는 科學優先으로 区分되어지는 것입니다. 技能을 優先하는 나머지 技能優先年代에서는 다가오는 技術優先年代에 對備한 措置가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技術優先年代인 現在는 產業技術을 우선하는 나머지 다가오는 科學優先年代에 對備한 措置가 別無하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有備無患이 아니라 無備有患의 愚를 범하고 있거나 않는지 反省해 볼만 합니다. R&D 投資配分에서 오늘의 問題解決에 80%를 그리고 20%는 다음年代에 대한 未來志向의인 投資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86年度에는 R&D 投資는 GNP의 2.0% 水準으로 計劃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第5共和國의 前進의인 意志의 表現일 것입니다. 大統領이 技術振興擴大會議을 創設하여 分期別로 主宰하고 있습니다. 즉 現在는 技術드라이브時代입니다. 이 會議가 조속히 “科學” 技術振興擴大會議로 發展되어야 할 것입니다. 科技關係學會와 科學技術人의 힘은 이 發展을 成就하는데 集約되어야 할 것입니다.

〈機能〉

學會는 專門學術의 交流場입니다. 會員은 研究發表를 통해 批判과 同意, 助言과 助力을 기대하고 자기가 하는 일의 位置와 重要度を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各學會는 固有의 專門學術의 發展과 普及에 진력하고 新知見의 探究를 통해서 살아있는 文化財(論文)를 確認蓄積해가고 있습니다. 學會의 運營은 民主的이고 研究發表에는 自由가 보장되어 있고 그 評價는 公開의인 것입니다. 民主, 自由, 公開가 學會의 生命입니다. 學術의 國際交流를 통해 學術水準의 提高뿐만 아니라 國民

外交의 一翼까지 擔當하고 있습니다. 各學會는 各自專門性에 執着하여 스스로를 聖域化시키는 性向이 있는 것 같고, 이같은 性向은 學會間의 共同問題를 抽出하여 政策化시키는 일을 阻害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보다 큰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反省하고 고쳐가는 努力이 必要합니다.

學會는 科學技術政策의 建議과 諮問이란 중요한 技能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科總'이 이같은 技能遂行에서 求心點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政府와 學會)

政府와 學會와의 關係는 共同關心事가 있으므로 해서 關係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共同關心事는 바로 科學技術振興政策(R&D와 教育)입니다. 즉,

- (1) 政策樹立에 參與
- (2) 研究開發 目標의 設定
- (3) 研究開發 推進方案의 策定
- (4) 科學技術者의 教育과 訓練問題
- (5) 頭腦流出 防止와 海外頭腦活用方案
- (6) 國際交流와 協力推進方法
- (7) 產·官·學의 協同體制編成問題

등에 관해서 學會는 政府에 建議하고, 政府는 學會에 諮問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政府는 政策立案者의 位置에 있고 學會와 會員은 政策施行者의 位置에 있는 것입니다. 科學技術政策의 目標를 明白히 認識한다는 것은 아주 重要하며, 그 本質은 国力의 適正한 配分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에 歸着합니다.

科學技術을 國家次元에서 進行시키기 위한 政策決定의 節次에 있어서 民主主義 立場에서나, 政策의 有效性이라는 立場에서나 問題가 있습니다. 行政府의 政策이라는 것은 어느나라에서도 왕왕있는 것이지만은 預算獲得의 技術에 不遇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預算이라는 것은 單年度 基準이므로 長期政策을 밀고 나가기에는 알맞는 것이 못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預算獲得의 技術에서 重

要한 것은 說得力일 것입니다. 行政府가 받아들이기 쉬운 課題를 選定하고 國會나 國民의 愛國心과 政治上의 이해관계에 호소하는 길로 기울어지는 傾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傾向이 科學技術政策에 偏向을 유발하고, 年々세세로 偏向이 누적되어 마침내 政策意識이 오도될 可能性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科學技術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科學技術의 內容은 高度하고 精緻하고 專門分化되어 一般國民이 이해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國會를 包含하여 一般國民은 科學者와 技術者의 해석과 강령을 듣고서 비로서 科學技術政策의 內容에 대해서 感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족습니다. 科學技術者의 集團인 學會는 政策判斷과 政策決定에 必要한 訓練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科學技術에 대한 專門家일지라도 政策에 關해서는 國民의 한사람으로서의 意見만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科學技術者는 科學技術의 規模의 擴大와 國家의 役割의 增大에 直面하여 科學技術의 立場과 國家의 立場을 어떻게 融和시킬 수 있는 것인지 많은 苦心을 하고 있는 것도 現實입니다.

이와같은 難題들의 解決은 科總의 機能을 強化하는 것이 한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政策決定에 있어서 事後審議보다는 事前協議가 보다 效果의인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政府는 科總을 우리나라 科學技術人의 代議機關으로 育成하여 尊重하고, 單位學會長의 모임인 이 모임은 "科技國會"의 機能을 수행하고, 우리는 "科技議員"으로서의 使命과 責任을 다할 수 있게되는 것을 저는 所望합니다.

3. 建 議

- (1) 學會育成施策을 促求하고 政府가 支援하는 學會誌刊行 補助金은 大幅 增額할 것.
- (2) "科總"機能을 補強하여 法制化하고 우리나라 科技人의 代議機關으로 育成할 것.